맵시으뜸 활동편리

불자용 생활법복 인기

한복응용한 디자인 ··· "가격 저렴 했으면"

맵시도 살리고 활동성을 고려한 불자들의 생활법복이 늘어나고 있다.

조계사 근처 20여곳의 승복점에는 전통한복의 기본인 저고리와 바지를 응용해 새롭게 디자인한 생활법복이 선보이고 있어 불자들의 눈길을 끈다.

기존의 단순한 개량한복의 형태에서 한단계 더 발전한 라운드블라우스 모양, 차이나식블라우스 모양의 웃옷과 편안한 통바지, 조끼, 자켓등 현대적 감각으로 디자인된 옷들이 바로 그것.

생활법복은 세련된 옷매무새와 실용적으로 달아놓은 단추등 세심한 곳까지 신경을 써 제작해 불자들이 착용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으로 인기가 높다.

옷감의 종류도 무명, 레이온, 순모, 면 등으로 다양해져 옷감의 재질에 따라 디자인과 분위기도 각각 다르다.

여기에 털실로 만든 목도리, 모자, 장갑, 그리고 가방등의 소품도 곁들여져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되어있다.

"작년에 비해 2배 정도가 증가한 하루평균 20여명 정도의 불자들이 생활법복을 찾고 있다"고 서울승복의 김여여성실장은 말한다. 김실장은 신행단체나 사찰의 단체주문시에는 원하는 모양으로 디자인도 해주기 때문에 실용성을 살린 개성있는 생활법복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생활법복은 얼마전 까지만 해도 여성불자들이 주로 찾았다. 그러나 근래들어 사찰내 거사들의 신행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남성불자들이 새로운 고객으로 등장했다는게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처럼 생활법복을 찾는 불자들이 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불자들의 신행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발해 졌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수 있다.

겨울 수련회에서 입을 수련복을 구입하기위해 승복점을 찾은 최종규거사는 "아무옷이나 입고 수련회에 입하는 것보다 단정하고 편안한 수련복을 마련해 수련에 참가 하면 일체감도 느껴지고 마음자세부터가 달라져 정진에 힘이 됩니다"라고 했다.

불교문화적 측면에 있어서 의생활의 연원은 깊다. 그러나 의복이 누더기를 붙여만든 분소의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출가자에 제한돼 있어 매우 단조로왔고 지금까지 불교계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의복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스님들이 평상복으로 사용하는 의복도 그 정확한 연원을 알 수는 없으나 전통한복의 영향을 받아 제작됐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불자들 스스로가 생활법복을 찾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서 의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복디자이너로서 불교계 각종 행사의 의상을 담당해온 허영씨는 "조선시대 한복의 모형에서만 소재를 구할것이 아니라 고구려, 고려의 고분벽화에 나타난 복식의 형태를 응용한다면 더욱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법복의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 아직은 대부분 수제작이어서 가격이 비싸다는 흠이 있다. 따라서 생활법복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불자들의 취향을 연구하고 계속적인 디자인 계발과 현대화된 생산라인을 통해 불자들이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라운드 블라우스 모양의 웃옷과 통바지, 조끼등 실용적인 모양의 법복들이 시중에 선보이고 있다.

송년 수상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저무는 한해의 언저리에서 영원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두시간 동안의 행복을 맛보고 싶다면 영화를 보고, 일주일간을 행복속에 살고 싶다면 복권을 사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다면 도를 깨달으라는 이야기가 생각 난다.

멋지고 화려하게 아무런 걱정이 없는 영화속의 주인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2시간동안 만큼은 행복에 잠길 것이고, 복권을 사놓고 1등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일주일동안도 괜한 희망과 행복감에 젖게 될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란 순간에 그쳐서는 안된다. 순간을 넘어서 그 무엇에 끄달림이 없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나는 1년동안의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 같다. 아들의 건강과 공부를 위해, 남편의 사업을 위해 부처님앞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웠다.

그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들이었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새삼 느낀다.

법당에 들어서면 언제나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발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의 행복만을 갈구하면서 1년을 또 다시 보내고 있다.

내가 여전히 미진한 중생의 껍데기를 벗어 내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세상에서 부처님 만나기도 어려우며 부처님법을 듣기도 어렵다하였다.

이 생의 귀한 인연으로 높으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 가르침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바른 도를 향한 길. 행복의 길임을 확신하면서 마지막 남은 94년의 며칠과 앞으로 찾아올 시간들을 나보다 더 큰 나의 행복을 발원하며 맞이하고 싶다.

정 혜 숙
〈주부·성동구 자양동〉

연변 동포에 책보내기

불교전국여법사회

한국불교전국여법사회(이사장 성순경)는 중국 연변동포들을 위한 양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연변동포 1세들에 비해 2, 3세들에게는 한국식 전통풍습과 언어가 잊혀져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나머지 좋은책을 통해 우리민족의 얼을 심어주고 마음의 양식과 지혜의 눈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우리말 사전, 역사, 위인전 등의 책이 이미 한 차례 중국 연변동포에게 전달됐으며, 계속적으로 책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02)395-2571

만화

法법 句구 經경

정진(不放逸)의 장

빨리 뛰는 말이 느린 말을 앞지르듯이

이 향 원

현직 고교 선생님의 명강의와 최고의 교재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

시사 고교 영어—수학 비디오 학습강좌

부족했던 학습보충과
다음 학기 예습을
일류강사 열 분의 명강의에
맡기십시오.
댁의 귀한 자녀를
우등생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시사 고교 영어·수학 VIDEO 종합 강좌는 전국고교에서 채택중인 8종 교과서를 종합한 최신 학습 교재입니다.

내신성적, 수학능력 평가시험, 대학 본고사의 확실한 개념 설명과 정확한 논리, 다양한 문제풀이로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을 시사영어사 VIDEO 강좌가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영어 조기교육의 필수교재
ENGLISH 300
국민학교 비디오영어
■"English 900"의 저자 Edwin T. Cornelius, Jr. 박사 저
즐겁게 보고 들으며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미국 어린이들처럼 영어로 말하게 됩니다.

시사 중학영어·수학 VIDEO 종합강좌
8종 교과서 총망라
기존 중학교재의 문제점과 취약부분을 철저히 보강하여 완벽하게 마무리한 「시사중학영어/수학VIDEO 종합강좌」 - 우등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영어강사 박서환 ·현 서울 양재고 교사 김중길 ·현 오금고 교사 서승진 ·현 한림대교수·언어학 박사
■수학강사 전도선 ·현 서울 양재고 교사 조성관 ·현 서울 양재고 교사 장 훈 ·현 한성과학고 교사

YBM 시사영어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642-19(역삼하이츠 I 빌딩 17F 765호) TEL: (02)558-5167-9, 565-5244 / FAX: (02)566-1246
교육부 본부장 이 용 갑